

학교밖청소년이란 정규학교를 다니다가 질병이나 비행, 경제적 곤란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학교를 중도탈락한 청소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5만 여명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있으며 비록 학교에 다니고 있으나 언제든지 학교를 떠나고자 하는 잠재적 중도탈락생이 50%를 넘고 있다(안현의, 2002).

이런 학교밖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둠과 동시에,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면서, 소속감과 동일시 준거를 잃을 뿐 아니라, 부정적인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소외감, 좌절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석숙이, 2000; 송광성, 구정화, 이명아, 김소희, 1992; 이소영, 2000; 표갑수, 1992; 정규석 & Bronson, 2000; Catterall, 1987; Chavea, Oetting & Swaim, 1994). 또한 대부분의 학교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나온 이후 사회적 부적응으로 이어져 비행에 연루되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됨으로써 사회복지비용이나 각종 보호, 교정 비용 등을 증가시키며,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송복 외, 1996; Natriello, Pallas, & McDill, 1986).

이에 학교 중도탈락을 예방하기 위한 선행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도탈락의 실태에 관한 연구(금명자, 권해수, 이문희, 이자영, 이수림, 2004; 송복외, 1996; 임성택, 2000), 중도탈락의 원인에 관한 연구(김경식, 1997; 김민, 2001; 박영숙, 1999; 오현애, 2002; 유성경, 이소래, 1998; 이숙영, 남상인, 1997; 장석민, 2002; 정진구, 1999; 표갑수, 1992; 황창순, 1996; Bryk & Thum, 1989; Rumberger, 1995), 그리고 잠재적 중도탈락청소년 및 복교 청소년의 적응을 돕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윤미경, 2002; 주영아, 2001; 허은하, 2002; 홍봉선, 1996; 홍혜영, 이수연, 2001)들이 있다. 이들 연구들은 모두 학교라는 사회적 제도 안에서 청소년들이 중도탈락을 하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 중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명자 외(2004)가 실시한 학교밖청소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청소년 1,010명 중 17.5%만 복교를 원했을 뿐 대다수의 학교밖청소년은 사회에서 돈을 벌거나(58.4%) 검정고시 준비(40.1%) 희망하며 이외 전문적인 기술 및 능력 키우기(39.7%), 취업이나 기술 습득(35.7%)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은 학교로 복귀하여 학업을 지속하기보다는 학교가 아닌 사회에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함을 시사한다. 또한 받고 싶은 도움의 내용으로는 검정고시 준비(40.3%), 경제적인 도움(30.8%), 취업소개(29.5%)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교밖청소년들이 진학이나 직업과 같은 진로에 대한 욕구는 많으나 현실적으로 진로계획을 세우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숙영과 남상인(1997)은 학교를 떠난 이후의 생활을 기준으로 학교밖청소년을 크게 정착형과 비정착형으로 구분하였다. 정착형이란 학교를 떠난 이후 어느 정도 기간을 방황하지만 정착하려고 노력하는 형태로서 진학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유형이다. 그러나 이들 중 많은 수는 여전히 학습의욕상실, 대인관계 문제, 생활적응상의 문제 등을 경험하고 있다. 비정착형이란 자신의 미래 진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유형으로 상당

수의 중도탈락 청소년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대부분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 병원 등에 수용되어 관리되고 있거나 유흥업소 등에 종사하고 있다.

서정아, 권해수, 정찬석(2006)은 학교밖청소년을 크게 정착형과 비정착형으로 구분한 후, 다시 정착형은 진학형(대안학교, 입학, 검정고시, 복교), 취업형, 직업훈련형 3가지로, 비정착형은 시설수용형(소년원 직업교육, 소년원 진학교육), 방치형 2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각 구분한 유형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주로 생활하고 있는 기관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현재 최소 10만 여명의 학교밖청소년 중 대안학교에 최대 5,000여명, 직업전문학교에 최대 2,500여명, 시설에 수용되거나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의 수는 최대 9,000여명으로 보고하고 있다. 일부 취업인구와 시설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인구를 제외한 나머지 50,000여명은 아무런 국가적 제도적 지원 없이 진로를 개척하고 미래를 계획해 나가야 하거나 방치되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상의 학교밖청소년의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볼 때 대부분의 학교밖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날 때 자신의 미래에 대한 준비 없이 학교를 그만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사회적 국가적 지원체계는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밖청소년들이 학교밖의 공간에서도 자신감을 회복하고 지속적인 자기개발 및 계속교육의 기회부여를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체계 정립이 무엇보다 절실하게 요구된다.

학교밖청소년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가족적 요인, 사회 환경적 요인, 개인적 요인 3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 있다.

이 중 가족적 요인은 양친부모의 유무(이숙영과 남상인, 1997; Ekstrom&Goertz, 1986), 민주적인 부모의 양육태도(Hirschi, 1969; Rumberger, 1995), 안정적인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근창, 2003; Franklin, 1992)으로 나타났으며,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는 낮은 학교생활의 부적응(박영숙, 1999; 손승영, 전효관, 정경희, 주은희, 최원기, 2003; 이소영, 2000), 또래집단의 낮은 비행성향(이근창, 2003; 전병재, 1991), 높은 또래집단의 정서적 지지(이근창, 2003)가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인적 요인으로는 높은 자기효능감, 높은 자존감, 높은 자기통제력(박현선, 1999; 이소영, 2000)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학교밖청소년들이 어떠한 진로를 선택하느냐와 상관없이 일반적인 특성만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학교밖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미래에 대한 준비 없이 학교를 그만둘 뿐만 아니라, 그만 둔 이후에도 자신의 상황이나 욕구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주위의 권유 등에 의해 검정고시, 대안학교, 직업준비 등의 진로를 선택하기 때문에 사회에 잘 정착하지 못하고 또 다시 포기, 좌절을 하는 경우가 많다. 박현선(2003)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학교밖청소년이 중도탈락을 하게 되는 원인, 중퇴하는 과정, 중도탈락 후 진로에 대한 고민 등 학교밖청소년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중도탈락 이후의 적응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있음을 밝혀냈다. 따라서 학교밖청소년의 사회적 정착을 돕기 위해 학교밖청소년 개인 및 환경요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그 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원을 계획하고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점검해주는 일련의 체계화된 과정이 시급히 요구된다. 김동일(2004) 역시 같

은 맥락 하에 학교밖청소년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독특한 요구를 이해하고 실행하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체계가 중요하며, 특히 ‘평가’를 위한 ‘평가’, ‘내적 결손’ 지향의 정신병리적 평가를 넘어서 실제적인 중재와 연계된 평가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개인의 요구를 이해함으로써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시스템 중 대표적인 것으로 영국의 Connexions를 들 수 있다.

Connexions에서는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 모델로서 학교를 중도탈락한 이후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들의 사회적 연착륙을 성공적으로 돕고 있다. 이것은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배제될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차원의 지원체계이다. Connexions에서는 APIR Framework을 통해 위기 청소년들의 사회적응을 돕고 있다. APIR이란 A(평가- Assessment), P(계획- Planning), I(실행- Implementation), R(재검토- Review)로서 각 청소년들의 욕구나 현 상태를 평가한 후, 이 결과에 따라 지원서비스를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 서비스 지원을 실행하며, 실행한 이후 청소년 및 서비스 지원기관 담당자들에게 실제 청소년에게 서비스 내용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서비스를 받은 후 변화된 정도에 대해 평가하게 하여 현재 서비스를 계속 실행할 것인지 수정할 것인지를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APIR Framework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첫 번째 단계인 평가단계이다. Connexions에서는 평가를 객관적이고 신뢰롭게 하기 위해 객관화된 표준화검사와 함께 면접,

관찰 등의 다면적인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이들의 사회적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http://www.connexions.gov.uk/connexionsService.cfm>).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밖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난 이후 진로를 선택하기 전에 자신의 현 상태에 대한 점검과 선택하고자 하는 진로영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진로적응의 개념을 학교밖청소년이 학교를 중도탈락한 이후의 진로(예: 검정고시, 대안학교, 복학 등에서 적응을 잘 하고 있는 상태 즉 자신이 선택한 진로를 최소 6개월 이상 지속 하거나 성공적으로 수행을 완료한 상태로 정의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진로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에서 진로적응의 개념을 진로성숙 수준(강호경, 2003; 유순화, 강승희, 윤경미, 2004; 최희경, 2006), 진로결정수준(김민정, 김봉환, 2007; 김희수, 2007; 이승수, 2004), 진로준비행동(박고운, 이기학, 2007; 박현주, 김봉환, 2006; 이승수, 2004)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과는 차별적 접근이다. 이는 학교밖청소년의 경우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응이라는 개념을 기존의 진로성숙이나 진로결정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적응을 기존의 개념과는 달리 진로를 선택한 후 성공적으로 수행한 개념으로 보고 이들이 진로적응을 잘 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러한 평가도구 개발은 추후 학교밖청소년들이 진로를 선택한 후 적응을 하는 데 실패를 야기할 수 있는 특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교밖청소년 개개인이 적응에 필요한 부분을 다차원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상담자나 청소년지도자가 효과적으로 개입하도록 돕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연구방법

문헌연구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해 학교밖청소년의 진로적응과 관련된 요인 10개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1차 진로적응 요인으로는 친구관계, 가족관계, 어른 및 교사와의 관계, 이성관계, 비행, 정신건강, 자아상, 생활 태도, 직업목표, 지적능력 등 10개 요인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면접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면접질문지는 Neumann, Kosson, Forth, Hare(2006)의 HAREPCL YV(Hare Psychopathy Checklist: Youth Version-청소년 비행성향 예측 검사: 청소년판)의 면접조사 도구(Interview Guide)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이 면접질문지는 비행청소년들의 현재 생활 및 심리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비구조화된 질문지이다.

또한 학교밖청소년의 진로 영역은 이숙영과 남상인(1997) 그리고 서정아 등(2006)에서 나타난 정착형 학교밖청소년의 진로 및 국가의 지원체계 중 유사한 항목은 통합하고, 중복되는 항목을 제외한 6개의 영역이 선정되었다. 최종 선정된 6개 영역은 아르바이트, 복학, 대안학교, 검정고시, 자격증 취득 준비, 그리고 직업전문학교이다.

면접 조사

면접 대상

면접조사 내용은 학교를 그만두고 자신이 선택한 진로영역에서 적응을 잘 하기 위한 특성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다. 면접 대상은 6개 진로영역을 경험하였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밖청소년으로 해당기관 담당자 및 학

교밖청소년 본인이 적응을 잘 하고 있다고 보고한 청소년들이다. 모두 24명으로 남자는 12명, 여자가 12명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대안학교 4명, 검정고시 준비 및 합격자 4명, 아르바이트 경험자 4명, 직업전문학교 3명, 자격증 취득자 3명, 대안학교 경험자 3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방법

면접은 연구자 4인(박사 수료 1인, 석사 3인)이 실시하였으며, 실시 방법은 1:1 면접이었으며 1인당 소요 시간은 40-60분이었고, 실시 전 사전 회의를 통해 면접 실시 방법 및 내용에 대한 협의를 거쳤다. 면접 내용은 우선 6개의 진로 영역(아르바이트, 복학, 대안학교, 검정고시, 자격증, 직업전문학교)에서 잘 적응(성공)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겠는가? 반대로 잘 적응(성공)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무엇인가? 등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험을 개방형으로 질문하였으며, 부가적으로 구조화된 면접 질문지 내용으로 질문하였다.

결과

6개의 진로 영역(아르바이트, 복학, 대안학교, 검정고시, 자격증, 직업전문학교)에서 잘 적응(성공)하기 위한 요인들을 면접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르바이트. 면접 결과 어른 및 교사와 관계가 좋은 청소년, 생활태도가 좋은 청소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에 잘 적응하며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속하는 내용으로는 ‘주인과 관계가 좋아야 한다’, ‘지각이나 결석은 안 된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쩔 수 없이 한다’ 등

이 있다.

전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봤는데요. 하는 친구들도 많이 보았구요. 아르바이트가 자기랑 맞지 않으면 쉽게 그만 뒤요. 그래서 자주 바뀌죠. 그러나 저는 일단 시작하면 오래 해요. 물론 경제적인 것도 있기는 하지만, 힘들어도 전 참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맡은 거니까. 제가 약속한 거니까. 그러나 책임감 없는 애들은 영~~ 아니에요. 그런 애들은 금방 때려치죠.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인 청소년)

주유소에서 3달 일했었어요. 그 때는 6시간 자고 계속 일 했어요. 힘들어서 그만 두었고요. 별로 앞으로도 하고 싶지 않아요. 돈 필요할 때만 일할 생각이예요. 힘든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어떤 애들이 오래 하는가?) 주위에 대부분이 금방 그만 뒤요. 그러나 경제적으로 힘든 애들은 아무리 힘든 일도 오래 하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애들은 친구들도 아니까 놀자고도 잘 안 해요. 이해해주죠. (주유소 아르바이트 경험 있는 청소년)

복학. 복학을 해서 잘 적응(성공)하는 청소년들은 친구관계, 어른 및 교사와의 관계, 정신건강, 생활태도가 좋고, 목표가 높은 반면 비행 경력은 적은 아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속하는 내용으로는 ‘애들이나 선생님과 싸우지 말아야 한다’, ‘과민하거나 짜증이 없어야 한다’, ‘일찍 일어나야 한다’, ‘졸업장은 꼭 따야한다’, ‘비행한 행동이 적어야 한다’ 등이 있다.

예전에 잘못된 게(비행) 많으면 선생님들이 색안경을 끼고 봐요. 별것 아닌데도 혼내고. 그러면 당근 다니기 싫어지죠. (복학 청소년)

복학하면 보통 다른 애들이 잘 안 거드려요. 나이가 차이 나니까. 그러나 육하는 애들 아니면.. 과민한 애들은 동생들이 뭐라 하면 사고를 치죠. 그럼 또 그만두게 되는 거고. 저도 비슷한 경우도. 별로 아쉬울 것도 없구. 그런 거죠. 뭐. (복학했다 중도 포기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대안학교. 대안학교에 잘 적응(성공)하는 청소년은 친구, 가족, 어른 및 교사와의 관계가 좋고, 생활태도나 경제 능력 또한 어느 정도 뒷받침 되어 주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학교를 잘 다니려면, 일단 나와야 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가기가 싫거든요. 부모님이 깨워주는데, 안 깨워주시고 나가는 날은 늦게 일어나죠. 그럼 결석하는 거고. 가봤자 늦으니까. 가기도 귀찮아지고요. 다른 애들도 똑 같아요. (대안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 A)

선생님이나 애들과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못 어울리는 애들은 여기도 잘 안 나와요. 다른 애들끼리는 친하니까 소외감을 느낀다고 해야 하나.. 처음엔 끝나고 바로 가다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잔소리하는 애들도 안 나오고. 잔소리하면 똑 같잖아요. 학교랑. (대안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 B)

검정고시. 검정고시에 패스하는 청소년들은 생활태도, 지적 능력이 좋으며, 목표가 있는 청소년들이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속하는 내용으로는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 ‘미루지 말아야 한다’, ‘머리가 나쁘지 않아야 한다’, ‘앞으로 뭐 하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한다’ 등이 포함된다.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애들이 있더라고
요.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열심히 해도 성적 안 오르는 애들 있잖아요. 머리 나쁜 애들. 그런 애들은 검정고시도 통과 못해요. (검정고시 통과한 청소년)

자격증 취득. 자격증 취득에 적응(성공)하는 청소년들은 가족 관계가 좋고, 목표가 높고, 경제적인 여건이 뒷받침 되어주는 청소년들이다. 이에 속하는 내용으로는 ‘학원가는 것을 부모가 도와줘야 한다’, ‘목표가 있어야 한다’, ‘학원비가 있어야 한다’ 등이 포함된다.

가족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학원비가 있어야 하나까.. 보통 그런 데 비싸잖아요. 저도 부모님 설득하는 데 좀 힘들었어요.. 아니면 목표가 뚜렷하던가. 정말 내가 너무 하고 싶고, 뭐가 돼야 겠다! 이런 애들은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하기도 하드라구요. (자격증 취득 학원 다니는 청소년)

직업전문학교. 직업전문학교에 잘 적응(성공)하는 청소년들은 친구, 어른 및 교사와의 관계가 좋고, 생활 태도, 지적능력이 좋으며,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는 청소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전문학교에서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선생님이 주로 수업을 하시니까.. 물론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잘 다니는데, 그래도 너무 I. Q 떨어지는 애들은 중도 포기를 많이 하죠. 어렵다고. 때로는 못 가르친다고 선생님 탓을 하면서.. 그런 애들 많아요. (직업전문학교 다니는 청소년)

이상의 학교 밖 청소년 면접 결과 이성 친구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으며, 친구·가족·어른 및 교사와의 관계에서는 친구, 가족, 어른이나 교사 누구든 상관없이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격려를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응답이 많았다. 그 결과 친구, 가족, 어른 및 교사와의 관계를 대인관계와 지지 환경 두 가지로 재구성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이 진로 적응을 잘 하기 위한 1차 요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경제적인 환경이 어려우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거나 경제적 환경이 뒷받침 되어야 대안학교나 자격증 취득 등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많아 경제적 환경을 추가하였다.

이상을 요약하면,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적응을 하기 위한 요인은 지적능력, 경제 능력, 대인관계, 목표, 비행 경험, 생활태도, 지지환경, 정신건강 총 8개로 정리된다.

전문가 평정을 통한 문항 구성

녹음한 축어록을 바탕으로 학교밖청소년이 각각의 진로 영역에서 적응을 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내용을 정리하여 유목화하였다. 유목화된 영역별로 설문 문항을 구성

하였는데, 일부 문항은 학교밖청소년들이 대답한 내용을 그대로 문항으로 사용하였으며, 일부 문항은 기존의 심리검사 또는 척도 문항을 참고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 때 참고한 척도는 다음과 같다.

지적능력

기본적인 학업성취를 하는 데 필요한 능력으로 귀인차원측정척도(문은식, 1989), 기존 선행연구(민병수, 1991; 이상필, 1990; 조한익, 1990)을 바탕으로 학교에 대한 흥미, 성적이나 학업관련, 학교규범관련하여 박현선(1998)이 새롭게 만든 학교적응유연성척도, 학업수행평가척도(오경자, 홍강의, 고려원, 박난숙, 1995)를 참고하였다.

경제능력

가정의 경제적 환경 또는 경제적인 것에 대한 주관적 어려움으로 박현선(1998)이 빈곤청소년의 가족관련 위험요소 중 가족의 사회경제적위험과 관련된 문항과 유성경, 이소래(1998)의 중도탈락관련요인 중 경제적 요인과 관련된 문항을 참고하였다.

대인관계

친구를 비롯한 사람들과의 관계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배영태(2003)가 개발한 중도탈락판별척도와 Shelein, Guerney 와 Stover(1971)의 대인관계변화척도(Relationship Change Scale; RCS)를 전석균(1994)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참고하였다.

목표

미래에 대한 희망 또는 목표의식으로, 배영태(2003)가 개발한 중도탈락판별척도를 참고하

였다.

비행경험

무단결석, 도벽 등 비행과 관련된 일탈행위를 한 경험을 나타낸 것으로, 김선남(1994)이 개발한 비행행동척도와 배영태(2003)가 개발한 중도탈락판별척도를 참고하였다.

생활태도

기본적인 생활습관으로 어떤 일을 지속해서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것을 나타낸다. 이는 이원휘(2000)가 제작한 시간관리능력과 배영태(2003)가 개발한 중도탈락판별척도를 참고하였다.

지지환경

기쁘거나 힘들 때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의 유무를 나타내는 것으로, Herdandez(1993)의 사회적 지지 문항과 배영태(2003)가 개발한 중도탈락판별척도 그리고 유성경과 이소래(1998)가 구성한 중도탈락관련요인 중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문항을 참고하였다.

정신건강

Derogatis(1977)가 개발한 것을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이 한국 실정에 맞게 표준화한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를 참고하였다.

이렇게 완성된 문항은 평가자 4명(박사 1명, 석사 3명)에게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평정결과가 CVI(Content Validity Index) 점수로 .75이상으로 나온 문항만을 채택하였다. CVI(Content Validity Index)란 Haxbleton.에 의해 개발된 방법으로 전문가 2명씩 짝을 지어 4점 척도로 되어 있는 평가지에 평정하도록 한 후, 2명의

평정자가 전체 문항 중 3-4의 점수를 준 문항의 비율을 보는 방법이다. 2명씩 짝지어진 전문가 2그룹에서 모두 공히 CVI 점수가 .75 이상으로 나온 문항은 8개 영역(지적 능력, 경제 능력, 대인관계, 목표, 비행경험, 생활태도, 지지환경, 정신건강)의 총 253문항으로 나왔다.

예비 설문 조사 실시

학교밖청소년의 진로적응척도의 타당도를 1차적으로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학교밖청소년 60명에게 전문가 평정을 거쳐 구성된 총 253 문항에 대한 예비 검사를 실시하였다. 학교밖청소년 60명 중 남자는 37명, 여자는 23명이었으며, 이들의 소속은 쉼터, 대안학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해밀’, 보호관찰소, 사회복지관 등의 기관에서 표집하였다.

본 설문 문항은 ‘매우 그렇다’(5점), ‘약간 그렇다’(4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의 5 단계로 구성하였으며, SPSS WIN11.0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신뢰도가 .40보다 낮은 문항 또는 중복되는 문항 124개를 삭제하였다. 그 결과, 남은 129개 문항의 신뢰도는 .68-87이었다.

설문 조사 실시

학교밖청소년 217명과 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 27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먼저 학교밖청소년의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남자는 103명(47.5%), 여자114(52.5%)명이었으며, 이들의 나이는 15세 미만이 17명(7.8%), 16세 29명(13.4%), 17세 55명(25.3%), 18세 49명(22.6%), 그리고 19세 이상이 67명(30.9%)이었다(표 4).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내용	영역	빈도(비율)	
		학교밖 청소년	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
	전체	217(100.0%)	277(100.0%)
연령	15세 미만	17(7.8%)	4(1.4%)
	16세	29(13.4%)	85(30.7%)
	17세	55(25.3%)	14(5.1%)
	18세	49(22.6%)	92(33.2%)
	19세 이상	67(30.9%)	82(29.6%)
성별	남	103(47.5%)	125(45.1%)
	여	114(52.5%)	152(54.9%)

그 다음으로 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 288명의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남자는 125명(45.1%), 여자152(54.9%)명이었으며, 이들의 나이는 15세 미만이 4명(1.4%), 16세 85명(30.7%), 17세 14명(5.1%), 18세 92명(33.2%), 그리고 19세 이상이 67명(30.9%)이었다(표 1).

설문에 응답한 학교밖청소년 217명의 특성을 살펴보면, 학교를 그만 둔 후 경험한 진로 영역의 분포를 살펴보면, 아르바이트는 116명,

표 2. 연구대상자(학교밖청소년)의 학교를 그만두고 경험한 영역

내용	영역	빈도	비율
	전체	405	100.0%
학교를 그만둔 후 경험한 영역 (중복응답)	아르바이트	116	64.8%
	복학	37	20.7%
	대안학교	54	30.2%
	검정고시	91	50.8%
	자격증 취득 기관	28	15.6%
	직업전문학교	24	13.4%

복학 37명, 대안학교 54명, 검정고시 91명, 자격증 취득 28명, 직업전문학교 24명이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결 과

요인분석

전체 129 문항에 대하여 주축분해법(Principal Axis Factoring)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직각회전법(varimax)으로 요인구조를 회전하였다. 표 3은 학교밖청소년 진로적응척도에 대한 회전하기 전의 고유치 1이상인 요인과 설명 변량이다. 주성분분석 방식으로 요인을 추출한 결과 고유치가 1이상인 요인은 21개였다. 그러나 처음 8개의 요인을 제외하고는 요인부하량이 .30보다 적고, 요인당 문항 수도 적어서 독립적인 요인으로 보는 데 무리가 있으며, 면접조사의 결과에 따라 잠정적으로 결정한 요인 수도 8개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8개로 지정하여 요인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이호준(2006), 홍창희와 한규석(2007)의 연구에 근

거하였다. 그 결과 8개 요인에 대한 전체 변량은 43.6%를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이영선과 김동일(2007)은 요인분석하여 요인 부하량이 .30이하로 적어 설명변량이 적거나 문항수가 요인당 1-2개인 문항의 경우 요인으로 설정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삭제하였으며, Safren, Truk, & Heimberg(1997)는 한 요인 이상에 부하된 문항으로서 그 부하량의 차이가 .10이 안 되는 문항들은 변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손재환, 2000). 이 두 연구에 근거하여 8개 요인에 대해서 직각회전 방식으로 요인구조를 회전한 후 요인부하량이 .30 미만이거나 다른 요인에 적재된 부하량과의 차이가 .10 이하인 문항은 삭제하였다. 총 27개 문항을 삭제하였으며 102개 문항을 최종 선택하였다. 표 4는 102개 문항에 대한 요인구조이다.

문항신뢰도

요인분석 하여 추출한 102개 문항에 대한 내적 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102개 문항에 대한 α 계수는 0.81의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표 3. 8개 요인의 설명변량

요인	요인명	고유치	변량비율	누적된 변량 비율
1	지지환경	18.807	18.438	18.438
2	비행경험	7.857	7.703	26.141
3	정신건강	5.422	5.316	31.457
4	경제능력	3.556	3.487	34.944
5	목표	3.471	3.403	38.347
6	생활태도	2.007	1.967	40.314
7	지적능력	1.762	1.728	42.042
8	대인관계	1.580	1.549	43.591

표 4. 진로적응 요인구조

요인명	문 항	요인 부하량							
		1	2	3	4	5	6	7	8
지지 환경 (15 문항)	속상할 때 주위 사람이 위로해 준다	.810	-.012	-.070	-.076	-.015	.045	.071	.198
	외로울 때 함께 있어줄 사람이 있다	.778	.027	-.074	-.097	-.029	.073	.064	.186
	기쁠 때 기쁨을 함께 할 사람이 있다	.771	-.041	-.011	-.062	.041	-.008	.098	.197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있을 때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761	-.008	-.009	-.046	.053	.040	.034	.191
	나를 신뢰해주는 사람이 있다	.761	-.077	-.135	-.087	.095	.066	.127	.020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었다	.745	.050	-.120	-.071	.029	.128	.074	.146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을 때 주위사람들이 그것을 들어주었다	.741	.018	-.035	-.106	.029	.140	.066	.148
	나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	.729	-.035	.001	-.006	.080	.048	.001	.063
	주위사람들이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해 주었다	.707	.018	-.094	-.110	.049	.111	.115	.046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	.685	-.020	-.145	-.116	.111	-.099	.028	-.049
	모든 것을 털어놓을 사람이 있다	.639	.049	-.133	-.015	.093	-.066	.058	.086
	나의 발전을 위해 적절하게 자극을 주는 사람이 있다	.639	-.047	-.044	-.027	.102	.094	.012	.031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	.599	.045	-.079	-.116	.084	-.096	.080	-.069
	아무도 나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460	-.093	-.261	-.142	.123	.103	.103	.072
	내 주위에는 내가 본받을 사람이 없다	.348	-.003	-.188	-.080	.175	.067	-.013	.031
비행 경험 (16 문항)	파출소나 경찰서에 자주 드나든다	-.009	.780	.058	.044	-.070	.091	-.113	-.023
	폭력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험이 있다	-.029	.770	.099	.062	-.056	.051	.007	.109
	남을 협박해서 돈을 뺏은 경험이 있다	.094	.726	.047	.059	-.022	.023	-.063	-.015
	청소년 유해업소에 자주 출입한다	-.029	.721	.035	.112	-.087	-.054	.079	.030
	나는 학생부장 선생님이나 선도부에게 걸린 적이 많다	.086	.705	.034	.118	-.041	-.121	.047	.132
	무단결석을 한 적이 있다	.015	.695	.026	.246	-.022	-.053	-.013	-.049
	오토바이 폭주를 즐긴다	-.020	.690	.009	.113	-.062	.139	.012	-.018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공공기물을 파손한 적이 있다	.009	.689	.091	.139	-.064	-.181	.122	-.001
	폭력 씨름에 가입한 적이 있다	.013	.670	.108	.067	-.043	.065	.063	-.031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어난 경험이 있다	-.042	.660	.039	.130	-.066	-.003	.010	-.088
	남의 돈을 훔친 적이 있다	-.032	.615	.040	.176	.037	-.132	-.097	-.116
	수업료를 다른 데 쓴 적이 있다	.047	.595	.179	.117	-.035	-.052	.034	-.014
	나는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024	.534	.044	.070	-.005	.029	-.027	-.005
	화가 나면 통제하기가 힘들다	-.092	.490	.210	.114	-.109	-.074	.040	-.043
	부모님에게서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	.132	-.429	-.182	-.251	-.038	.089	.043	.171
	어릴 때부터 어른들에게 자주 혼나는 편이었다	.096	-.365	-.168	-.253	.077	.143	.148	.159

표 4. 진로적응 요인구조

(계속)

요인명	문항	요인 부하량							
		1	2	3	4	5	6	7	8
정신 건강 (17 문항)	기분이 울적하다	-.134	.168	.763	.187	-.048	-.061	-.058	-.098
	매사에 걱정이 많다	-.025	.086	.732	.113	-.061	-.219	-.035	-.054
	나는 불안하다	-.205	.057	.694	.079	-.159	-.130	-.108	-.057
	외롭다	-.120	.114	.692	.209	-.014	-.100	-.063	-.128
	하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안되고 막히는 기분이다	-.067	.093	.641	.089	-.146	-.281	-.093	.030
	쉽게 기분이 상한다	-.001	.107	.633	.130	-.097	-.214	.068	-.009
	내가 남보다 못한 것 같다	-.130	-.049	.578	.197	-.224	-.193	-.084	-.045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 같다	-.250	.137	.566	.149	-.097	.021	-.134	-.215
	늘 남과 동떨어진 느낌이다	-.313	.160	.554	.132	-.053	-.093	-.160	-.365
	남들이 나를 쳐다보거나 나에게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거부해진다.	-.056	.007	.551	.096	.005	-.172	-.012	-.202
	울기를 잘한다	.079	.036	.547	.028	.044	-.114	-.071	.034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한다	-.018	.131	.532	.138	-.138	-.066	.022	-.150
	누가 내 것을 빼앗으려 한다	-.185	.252	.522	.134	-.131	.093	-.122	-.066
	늘 불안하다	.219	-.158	-.516	-.194	.123	.282	.133	.134
	우울하고 무기력하다	.155	-.014	-.509	-.154	.306	.146	.094	.212
	누구를 때리거나 해치고 싶은 생각이 든다	-.125	.343	.495	.108	-.047	-.057	-.002	-.143
	넓은 장소나 거리에 나가면 두렵다	-.185	.132	.429	.139	-.106	.001	-.192	-.255
경제 능력 (16 문항)	집에서 용돈 받기가 힘들다	-.135	.112	.045	.716	-.019	-.018	-.056	-.119
	나는 늘 돈이 부족하다	.033	.200	.183	.662	-.061	-.217	.006	-.029
	다른 친구들에 비교해서 내 용돈은 적은 편이다	-.055	.028	.061	.651	-.084	-.065	-.086	-.158
	우리 집에서 돈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	-.070	.156	.138	.629	-.073	-.123	-.142	-.076
	학비가 걱정이다	-.124	-.006	.207	.564	.028	.061	-.118	-.052
	우리 부모님은 늘 돈 때문에 싸운다	-.099	.122	.122	.551	-.135	-.028	-.169	-.115
	지금 돈을 벌고 싶다	.061	.257	.116	.551	-.012	-.097	-.041	-.034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닌다	-.157	.127	.085	.534	-.049	.081	-.050	-.095
	나는 지금 돈을 벌어야 한다	.020	.327	.158	.534	-.014	-.001	-.073	.002
	우리 집에서는 나한테 쓰는 돈을 아까워한다	-.201	.164	.135	.529	-.145	-.022	-.137	-.124
	돈이 없어 꿈을 포기한 적이 있다	-.138	.137	.090	.509	-.083	.064	-.065	-.088
	돈을 쓸 때는 너무 많은데 용돈이 늘 모자란다	.071	.156	.162	.490	-.040	-.208	.031	.045
	우리 집은 형편이 넉넉한 편이다	-.077	.012	.062	.457	.060	-.058	-.106	.001
	돈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할 수 있다	.096	.214	.067	.438	-.053	-.102	.181	.040
	집에서 돈을 벌라고 한다	-.178	.176	.089	.427	-.060	.060	-.147	.019
	부모님은 어떤 직업이든 간에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제일 이라고 생각 하신다	-.177	.057	.076	.422	-.101	-.007	-.077	-.050

표 4. 진로적응 요인구조

(계속)

요인명	문항	요인 부하량							
		1	2	3	4	5	6	7	8
목표 (11 문항)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모르겠다	.082	-.026	-.131	-.152	.719	.145	.050	.026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014	.018	-.194	-.187	.669	.192	.091	-.027
	장래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있다	.110	-.044	.050	.050	.668	.040	.145	-.064
	누군가 나에게 목표를 정해주었으면 좋겠다	.049	-.120	-.034	-.140	.519	.098	.060	.061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159	-.036	-.272	-.051	.506	.206	-.003	.178
	하고 싶은 것이 자꾸 바뀐다	.034	-.083	-.118	-.054	.482	.209	.051	-.013
	목표성취를 위해 다른 욕구를 조절할 수 있다	.112	-.028	-.034	.105	.448	.147	.108	-.045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뚜렷한 사람은 신기하다	.066	-.017	-.096	-.039	.446	.291	.127	.053
	나의 미래는 절망적이다	.293	-.207	-.204	-.146	.428	.024	.227	.099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귀찮은 일이다	.133	-.172	-.075	-.147	.418	.125	.202	.191
뭘 해도 내 인생은 행복할 것 같지 않다	.199	-.245	-.285	-.131	.398	.076	.131	.162	
생활 태도 (9 문항)	나는 빈둥거리며 많은 시간을 허송하는 편이다	.050	-.003	-.220	.004	.263	.676	.033	.041
	일을 시작할 때는 열성을 보이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	.055	.082	-.166	-.036	.180	.649	.089	.076
	어렵거나 힘든 일은 피하는 편이다	.015	-.034	-.172	-.033	.175	.636	.135	.118
	나는 게으른 사람이다	.018	.004	-.197	.033	.099	.553	.011	.056
	한번 시작한 일을 끝낼 내지 못한다	.117	-.023	-.174	-.094	.160	.539	.159	.038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다	.151	-.092	-.235	-.135	.292	.528	.259	.068
	내 생활은 질서가 없이 뒤죽박죽이다	.133	-.229	-.163	-.190	.207	.503	.138	-.002
나는 늘 생각만 한다	.005	-.169	-.143	-.092	.265	.422	.025	-.071	
자신감이 부족하다	.168	.102	-.264	-.158	.083	.385	.262	.082	
지적 능력 (11 문항)	공부에 관해서는 이해가 늦다	.012	.002	-.064	-.125	.196	.020	.548	.086
	성적이 상위권이였다	.039	-.090	.015	-.098	-.031	.029	.512	-.191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다	.007	-.107	-.125	-.085	.110	.115	.505	.071
	나는 지능이 떨어지는 것 같다	.001	-.011	-.076	-.224	.169	.080	.492	.208
	나도 한 때 공부를 잘 한 적이 있었다	.147	.077	-.029	-.037	-.066	-.082	.486	-.011
	열심히 공부를 해도 성적은 늘 좋지 않다	.110	-.033	-.169	-.077	.181	.076	.457	.074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하다면 하면 잘한다	.224	.016	.007	.039	-.009	.045	.409	.084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002	.046	-.057	-.166	.179	.181	.405	-.018
	기초학력이 부족하다	-.071	-.057	.004	-.176	.066	.182	.397	.029
공부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137	.154	-.104	-.090	.086	.148	.313	-.126	
암기를 잘 한다	.107	.100	-.084	.028	.143	.055	.301	.014	
대인 관계 (7 문항)	남들과 관계를 맺지 않으려 한다	.268	-.151	-.213	-.096	.088	4.221E-05	.034	.625
	친구는 필요 없다	.310	-.046	-.156	-.096	.036	-.074	.002	.558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하다	.178	.134	-.225	-.065	.015	.088	-.076	.507
	남이 나에게 잘 해줄 때에는 무슨 숨은 의도가 있나 생각한다	.171	-.127	-.194	-.210	.053	.139	.058	.479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는 편이다	.163	.029	-.229	-.113	.055	.120	.200	.412
	세상엔 믿을 사람이 없다	.272	-.077	-.193	-.211	.088	.123	-.068	.407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다	.143	-.025	-.276	-.177	-.064	.080	.166	.401	

척도의 타당화

판별분석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학교밖청소년진로적응 척도가 학교밖청소년집단과 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 집단을 유의미하게 변별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판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8개의 변인들은 전체 변량 중 41%(정준상관계수=.639)를 설명하고 있으며 Wilks' Lambda에 대한 검증이 유의미(Wilks' Lambda =.591, $p < .001$)하였다. 따라서 8개의 변인에 의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정준판별함수 계수를 살펴보면 비행경험이 다른 변인에 비해 가장 좋은 판별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즉, 비행경험은 학

표 5. 정준판별함수의 고유치 및 정준상관계수

함수	고유치	변량을	누적을	정준상관(CC)
1	.692	100.0	100.0	.639

표 6. Wilks' Lambda 값

함수의 검증	Wilks' Lambda	카이자승	자유도
1	.591***	236.561	8

*** $p < .001$

표 9. 분류결과

	집단	예측 소속집단		전체
		학교밖청소년	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	
사례수	학교밖청소년	155	61	216
	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	25	215	240
백분율	학교밖청소년	71.8%	28.2%	100.0%
	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	10.4%	89.6%	100.0%

표 7. 정준판별함수 계수

구분	표준화된 판별함수 계수	비표준화된 판별함수 계수
지지환경	-.225	-.018
비행경험	.980	.106
정신건강	-.296	-.024
경제능력	.281	.023
목표	.230	.026
생활태도	.038	.005
지적능력	-.080	-.012
대인관계	-.157	-.027

표 8. Fisher 선형판별함수

	판별함수 계수	
	학교밖청소년	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
지지환경	-.179	.209
비행경험	.233	.058
정신건강	.703	.743
경제능력	.496	.457
목표	.444	.400
생활태도	.455	.446
지적능력	.631	.651
대인관계	1.147	1.192
(Constant)	-77.967	-73.816

교밖청소년과 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을 구분 짓는 중요한 변인으로 생각된다.

학교밖청소년 집단과 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 집단을 얼마나 잘 분류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Fisher 선형판별함수 계수를 산출하고 각 피험자의 판별점수를 산출하여 각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결과로서 학교밖청소년 집단은 전체 216명 중에서 155명(71.8%)을 정확하게 분류하였고, 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집단은 전체 240명 중에서 215(89.6%)명을 정확히 분류하여 좋은 예측을 보였다.

논 의

청소년기의 주요한 발달기적 특징 중 하나가 자아정체감과 자아상을 형성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때 학교를 다니거나 다니지 않는 것도 하나의 진로행동 또는 자아개념을 확립하는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학교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미래와 진로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잘하는 사람인지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를 탐색하고 자신의 색깔을 보다 명확히 하고 성장해 가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환경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혼란과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환경을 떠나고 싶은 것은 삶의 의지의 발현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적응에 대한 소극적 반응이 아니라 적극적 자기 보호적 행동으로 볼 수 있다(안현의, 2002). 본 연구에서는 학교밖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난 이후 새로이 선택한 진로영역에서 잘 적응하는데 요구되는 요

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밖청소년들의 학교중도탈락 과정과 중도탈락 이후 사회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문헌고찰을 통해 학교밖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난 이후 또 다른 선택을 한 진로에 잘 적응하는데 필요한 10가지 영역을 선정하였다.

둘째, 학교를 떠난 이후 6개월 이상 대안학교나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고 있거나 직업전문학교나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였거나 현재 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요인과 방해가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대인관계, 지지환경, 비행경험, 목표, 정신건강, 생활태도, 지적 능력, 경제적 환경의 8개 영역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정상궤도(on-track)에서 적응을 잘 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들은 궤도를 이탈한 학교밖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것은 우선, 학습능력 두 번째는 부모 및 다른 가족의 갈등을 유발할 정도의 빈번하고 질적인 관심 세 번째, 자신이 세워놓은 목표를 향해 높은 에너지-때로는 분노감정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네 번째,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고 나태하지 않으며 다섯 번째, 적응력이 뛰어난 개인적 특질, 마지막으로, 가족이외 직업세계나 다른 종류의 학교선생님들과 높은 수준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현재 일하고 있는 직업현장에서 만나는 성인들과도 질 높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Dillon, Liem, & Gore, 2003)와 일치한다.

셋째, 적응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이 8개 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면접조사 내용과 이미 개발되어 있는 척도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1차 문항으로 253문항을 구성하였다. 이

후 예비 설문조사 및 본 설문조사를 통해 2차 129 문항이 선정되었고 이들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8개요인, 102개 문항이 최종 선정되었다.

넷째,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집단과 학교밖청소년 집단을 유의미하게 변별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전체 8개의 변인들은 전체 변량 중 41%를 설명하고 있으며 Wilkis' Lambda에 대한 검증이 유의미(Wilkis' Lambda=.591, $p < .001$)하였다. 또한 Fisher 선형 판별함수 계수를 산출하고 각 피험자의 판별 점수를 산출하여 각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결과를 보면, 학교밖청소년집단은 전체 216명 중에서 155명(71.8%)을 정확하게 분류되었고, 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 집단은 전체 240명 중에서 215명(89.6%)을 정확하게 분류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가 학교밖청소년들의 진로적응을 예측하는 데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도구임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학교밖청소년들의 학교를 떠난 이후의 진로선택 및 적응을 도와주는 연구가 거의 없는 시점에서 정규학교가 아닌 다른 선택을 한 청소년 연구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학교밖청소년들의 진로적응에 필요한 하위구성요인과 문항들을 찾아내어 척도로 개발하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이 학교밖소년의 학교중도탈락 원인이나 특성에 초점을 둔 것에서 한층 나아가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요인들을 찾아낸 것으로 이들의 사회적응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둘째, 학교밖청소년들이 자신이 선택한 진로 선택 및 나아가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상담 및 개입 프로그램 내용을 산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즉 학교밖청소년이 선택한 진로에서 적응하는 데 부족한 요인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적절히 개입하는 것은 사회적응을 촉진시킬 것이다. 셋째,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이는 학교밖청소년이 곧 비행청소년으로 동일시되어 논의되었던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박현선(2004)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학교밖청소년들도 적절한 개입만 이루어진다면 성공적인 사회적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넷째, 학교 중도탈락과 사회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은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학교밖소년들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새로운 연구분야를 제시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것은 학교중도탈락에 관한 많은 최근의 이론들이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도 학교 중도탈락과는 다른 사회적응에 필요한 요인을 통합하고 조직화하는 것에는 부족함이 많다(Janosz, Le Blanc, Boulerice, & Tremblay, 2000)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중요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지니는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학교밖청소년들의 진로영역을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볼 수 없었다. 진로탐색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 예를 들어 직업교육 프로그램이나 홈스쿨링, 대안교육, 인턴쉽 프로그램과 같은 진로선택 준비과정에서부터 진로결정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적응과정에 요구되는 요인을 찾아내는 것은 학교밖청소년 상담에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학교밖청소년들의 진로적응에 요구되

는 요인탐색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 진로영역에서 성공할 수 있는 혹은 준비가 요구되는 것을 판별할 수 있는 영역별 점수와 전체점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준거 타당도나 공인 타당도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 척도의 타당화작업과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호경 (2003). 고등학생의 의사결정 유형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금명자, 권혜수, 이문희, 이자영, 이수림 (2004). 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 학교밖청소년 욕구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김경식 (1997). 중·고교중퇴생과 재학생의 교내외 생활비교를 통한 중퇴요인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7(3), 115-138.

김동일 (2004). 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위한 평가체계: 평가와 상담·지원 서비스의 연계.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김민 (2001). 자발적 학업중도탈락 현상 발생 요인에 대한 분석 연구. 서울: 한국 청소년 개발원.

김민정, 김봉환 (2007). 불안과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0(1), 13-25.

김선남 (1994). 청소년 비행관련 변인간의 인과적 분석.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문은식 (1989). 학습성취사와 성별에 따른 학교학

습 성취귀인의 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민병수 (1991). 학교생활의 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고운, 이기학 (2007). 진로결정자율성수준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409-422.

박영숙 (1999). 학교환경이 청소년의 학업중퇴에 미치는 영향.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현선 (1999). 실직가정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평가. 한국아동복지학, 8(1), 35-58.

박현선 (2003). 청소년의 학업중퇴 적응과정에 대한 현실기반이론적 접근. 한국사회복지학, 53, 75-104.

박현선 (2004). 학업중퇴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청소년상담학연구, 12(2), 69-82.

박현주, 김봉환 (2006). 고등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2), 419-439.

배영태 (2003). 중고생의 중도탈락 인과모형 검증과 판별척도 개발.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정아, 권혜수, 정찬석 (2006). 학교밖청소년의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한국청소년개발원.

석숙이 (2000). 중도탈락학생의 학교재적응을 위한 사회사업 개입방안.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손승영, 전효관, 정경희, 주은희, 최원기 (2003). 학업중퇴자 현실과 대안. 서울: 학지사.

- 손재환 (2000). 한국인 사회공포증 척도 개발에 관한 예비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광성, 구정화, 이명아, 김소희 (1992). 정학·퇴학 청소년 선도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5, 80-100.
- 송복, 손승영, 조혜정, 황창순, 김병관, 정경희 (1996). 학업중퇴자 연구: 실태 및 대책. 서울: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안현의 (2002). 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오현애 (2002). 학교중퇴 청소년에 대한 지원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 석사학위논문.
- 오경자, 홍강의, 고려원, 박난숙 (1995). 주의력결핍·과잉활동장애에 대한 약물치료와 부모훈련을 통한 행동치료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4(1), 1-14.
- 유성경, 이소래 (1998). 중도탈락학생의 사회적응 상담정책 개발연구II: 잠재적 중도탈락학생에 대한 개입체제 개발연구. 서울: 청소년대화의광장.
- 유순화, 강승희, 윤경미 (2004). 대학생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과 수준 및 진로성숙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5(4), 1111-1123.
- 윤미경 (2002). 잠재적 중도탈락 학생을 위한 적응유연성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홍익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근창 (2003). 학교중퇴청소년의 중퇴이후 적응 관련 요인에 관한연구. 충남대행정대학원.
- 이상필 (1990). 학교생활적응수준에 따른 학업성적 및 행동특성의 차이분석.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소영 (2000). 학교중단 청소년의 중퇴이후 적응 결정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수 (2004). 진로선택과정에서 직업불일치와 통제소재가 진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영, 남상인 (1997). 중도탈락 학생의 사회적응 상담정책 개발연구.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 이영선, 김동일 (2007). 채팅상담 성과척도 개발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467-488.
- 이원희 (2000). 고등학생의 시간관리와 학업성취와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호준 (2006). 참가자 관점 부모교육 평가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성택 (2000). 청소년단체의 운영실태 및 협력체계 구축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장석민 (2002). 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 학교를 떠난 청소년의 진로문제와 지도대책.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전병재 (1991). 청소년 친구집단과 비행간의 상관성 연구.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 전석균 (1994). 정신분열증 환자의 재활에 의한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규석 & Bronson, D. E. (2000). 미국 고등학생의 학교중퇴에 관한 다체계 모델. 한국 아동복지학, 9(1), 205-225.
- 정진구 (1999). 고등학교 복학생들의 진학·복학의 원인과 자아정체감 및 학교부적응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한익 (1990). 학업성취도에 따른 자아 및 학교

- 생활에 대한 태도와 학업성취에 대한 귀인 양식의 차이.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영아 (2001). 복교생의 학교적응을 위한 사회적 유능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계명대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 최희경 (2007).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 및 의사결정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표갑수 (1992). 학교중퇴의 원인과 과제. 청주대 학생생활연구, 14, 11-20.
- 허은하 (2002). 잠재적중도탈락 청소년의 학교적응 돕기 위한 집단프로그램 개입에 대한 연구. 한일장신대 기독교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봉선, 남미애 (1998). 복교를 원하는 부산지역 중퇴청소년 부모의 욕구의 사회적 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4(1), 141-179.
- 홍창희, 한규석 (2007). 한국 정서표현성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133-148.
- 황창순 (1996). 청소년 학업중퇴 현황과 사회복지 대책. 순천향사회과학연구, 2(1), 109-133.
- Baker, R. A. (1991). Modeling the school dropout phenomenon: school policies and preventing program strategies. *The High School Journal*, 4, 203-210.
- Bryk, A. S., & Thum, Y. M. (1989). *The effects of high school organization on dropping out: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Bryk, Anthony S, Center for Policy Research in Education.
- Catterall. J. (1987). On the social costs of dropping out of school. *The High School Journal*, 71, 19-30.
- Chavea, E. L., Oetting, E. R., & Swaim, R. C. (1994). Dropout and delinquency: Mexican-American and Caucasian non-hispanic youth.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3(1), 47-55.
- Derogatis, L. R (1977). SCL-90(Revised) Manual I. Clinical Psychometrics Research Unit, Blatmor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 Dillon, C. O., Liem, J. H., & Gore, S. (2003). Navigating disrupted transitions: getting back on track after dropping out of high school.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3(4), 429-440.
- Downing, J., & Harrison, T. C. (1990). Dropout prevention: A practical approach. *School Counselor*, 38, 67-75.
- Ekstrom. R. B., & Goertz. M. E. (1986). Who drops out of high school and why? findings from a national study. *Teachers College Record*, 87(3), 356-373.
- Franklin. C. (1992). *Family and individual patterns in a group of middle-class dropout youth*. Docial Eork.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National Study. *Teachers College Record*, 83(7), 356-373.
- Hernandez, L. P. (1993). *The role of protective factors in the school resilience of Mexic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Janosz, M., Le Blanc, M., Boulerice, B., & Tremblay, R. E. (2000). Predicting different types of school dropouts: A typological approach with two longitudinal samples.

-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2, 171-190.
- Natriello, G., Pallas, A. M., & McDill, E. L. (1986). Taking stock: Renewing our research agenda on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dropping out. *Teachers College Record*, 87, 430-440.
- Neumann, C. S., Kosson, D. S., Forth, A. E., & Hare, R. D. (2006). Factor structure of the hare psychopathy checklist: Youth version (PCL: YV) in incarcerated adolescents. *Psychological Assessment*, 18(2), 142-154
- Rumberger, R. W. (1995). Dropout of middle school: A multi-level analysis of students and school. *Educational Researcher*, 32(8), 583-625.
- Schlein, S., Guerney, B., & Stover, L. (1971).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Safren, S. A., Truk, C. L., & Heimberg, R. G. (1997). Factor structure of the 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and the social phobia scale.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4), 443-453.

원 고 접 수 일 : 2007. 5. 22

수정원고접수일 : 2008. 3. 26

게 재 결 정 일 : 2008. 8. 8

A Study on Developing and Validating a Scale of Career Adjustment for School Dropouts

Myoungja Keum Younga Ju Jayoung Lee Taesung Kim Sangsu Kim Hyunsu Shin

Daegu University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Washingt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a scale of career adaptation for school dropouts. Some influencing factors on adaptation extracted from the literature were complemented through interviews with school dropouts. The results from our interviews revealed that there were 8 factors affecting dropouts' career adaptation, which as follow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upporting environment, experience of delinquency, goal setting, mental health, attitudes toward life, intellectual ability, and economic circumstances. According to advice from the evaluations of professionals, the primary scale consisted of 253 items. Through factor analysis, the final version of scales was confirmed with 102 items. The final scale was administered to both students attending schools and school dropouts to obtain group data for discriminant analysis. The outcome from discriminant analysis indicat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which proved the validity of the scale.

Key words : out of school, career adjustment, developing a scale